

『어우야담』 소재 귀신담의 서사 전개 양상과 의미

현혜경*

<차례>

1. 서론
2. 『於野譚』所載 鬼神譚의 서사 전개 양상
3. 『어우야담』 소재 귀신담의 서사 전개 양상의 의미
 - 1) 삶의 정도(正道) 지향의식
 - 2) 사회 현실의 문제 제기과 극복의식
 - 3) 유교 불교 무속이 혼재된 귀신인식
4. 결론

<국문초록>

본 논문에서는 『어우야담』 귀신담 전체를 다루면서 서사 전개 양상의 전반적인 성격을 밝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귀신이야기가 가지는 중요한 의미를 탐색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어우야담』에 실려 있는 귀신담 40편 전부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2장에서는 주된 서사적 관심사로 나타나는 인간과 귀신(혹은 사후 세계)의 만남 양상을 기준으로 여섯 유형으로 분류하여 서사 전개 방식과 구체적인 서사 양상을 분석하였다. 그리하여 귀신담의 전반적인 서사 양상을 효과적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했다. 1) 인간이 사후 세계를 확인 2) 인간이 귀신 존재를 확인 3) 인간이 귀신의 문제 해결 4) 귀신이 인간을 도움 5) 귀신이 고관대작을 범하지 못함 6) 귀신이 인간에게 해 끼치지 등으로 구분된다.

3장에서는 2장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유몽인이 귀신담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중요한 의미를 탐구하였다. 그 결과 삶의 정도(正道) 지향의식, 사회 현실의 문제 제기과 극복의식, 유교 불교 무속이 혼재된, 주체적인 귀신인식 등을 밝힐 수

* 한경대학교 미디어문예창작학과 교수

있었다.

『어우야담』 귀신담은 귀신에 관한 민간신앙이나 풍습 속에서 미혹되지 않고 오히려 건강한 삶의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으며, 절박한 사회문제를 수용하여 제기하고 극복하고자 하는 의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닐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집권사대부인 유몽인의 진솔한 귀신인식도 들여다 볼 수 있었으며 『어우야담』 귀신담의 서사문학사적 위상도 부분적으로나마 함께 점검해 볼 수 있었다.

□ 어우야담, 귀신담, 서사전개 양상 분류, 삶의 정도 지향의식, 사회문제 제기, 귀신 인식

1. 서론

죽음은 삶 속에 항상 내재되어 있다. 죽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삶에 대해서도 온전히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죽음에 대한 궁금증과 죽음의 침묵은 영원한 역설적인 관계에 있다. 죽음의 완강한 침묵 앞에서도 인간은 죽음에의 물음을 단념할 수가 없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후 세계와 사후 존재의 징후들을 발견하고 죽음에 대한 해답을 얻고 싶어 한다. 그러한 인간의 욕구가 『어우야담』의 ‘귀신담’에도 잘 드러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어우야담』의 ‘鬼神譚’에서 문학적 상상력으로 펼쳐나가는, 죽음에 대한 물음과 그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어우야담』에서 유몽인은 조선 전기 필기서보다 훨씬 많은 귀신담을 수록하면서 죽음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본 논의는 『어우야담』 귀신담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서사 전개 양상의 전반적인 성격을 파악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귀신담을 통해 드러나는 중요한 의미를 총괄

하여 탐색하고자 진행된다. 이는 『어우야담』 귀신담에 대한 기본적인 논의와 이해가 될 것이다.

논의과정에서 정본 『어우야담』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¹⁾ 정본은 만종재본의 귀신담을 바탕으로 하면서, 다른 이본과의 검토를 통하여, 만종재본의 귀신담 중 극히 일부에서 내용상 약간의 보완을 하였고, 보유편에서 5편의 귀신담이 보충되었다. 『어우야담』 2권에는 ‘영혼’ ‘귀신’ 항목이 있고 각 항목에 각각 15편, 22편의 이야기가 소속되어 있는데 본고에서는 4편을 제외하고²⁾ 귀신과 죽음에 관련된 이야기 33편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또 ‘몽(夢)’ 항목에서는 1편, 5권 만물편 ‘고물(古物)’ 항목에서 1편의 귀신담을 연구 자료로 채택했다. 보유편의 귀신담 5편을 합해서 모두 40편의 귀신이야기가 연구 대상 자료이다.³⁾

만종재본에서는 ‘영혼’과 ‘귀신’으로 항목을 나누어 놓고 있으나 소속된

1) 유몽인, 『어우야담 : 원문』, 돌베개, 2006.

2) 이같은 자료는 139<신숙주소시부알성시(申叔舟少時赴謁聖試)¹⁾ 140<전영달문관야(全穎達文官也)>¹⁾ 157<유사인김위송도인야(有士人金偉松都人也)> 158<사사지엄(祀事至嚴)> 등이다. 139와 140에서 나타나는 초현실적 존재는 그들이 속한 이계가 하늘과 연관된 신성(神聖)한 공간으로 생각되고 그들의 서사적 행위 또한 연구 대상의 자료들의 귀신과는 변별력을 지닌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157 158은 귀신담이 아니다.

자료의 제목은 작품의 처음 문장으로 하였다. 제목 앞에 제시된 번호는 읽는 사람의 편의를 위해 정본 『어우야담』 번역본에서 각 이야기 앞에 순차적으로 붙인 것을 따른 것이다. 이후로는 작품을 반복 제시할 때는 경우에 따라서 번호만 제시하기도 하겠다.

번역본은 다음 두 저서를 서로 보완하며 사용하였다.

유몽인, 『어우야담』, 신익철 외 3인 역주, 돌베개, 2006.

유몽인, 『어우야담』 1,2,3, 현혜경, 김충실, 신선희(역주), 전통문화연구회, 2003.

3) 해당 자료는 본론의 논의과정에서 제시한다. 전체 자료 편수는 각 편에 붙인 번호를 중심으로 헤아렸다. 간혹 하나의 번호 안에서 처음 이야기 다음에 동일한 성격의 다른 이야기가 이어져 있거나, 본 이야기 끝에 부수적으로 첨가된 짧은 이야기가 있는데 연구자에 따라 다른 이야기로 헤아릴 수 있을 것이다.

이야기의 내용으로 볼 때 두 항목으로 나누는 엄밀하고 정확한 기준을 찾기 어렵다. 대체로 ‘영혼’ 항목에 소속된 이야기들은 생자(生者)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죽은 사람의 혼령이 많고, ‘귀신’ 항목에는 요괴, 물괴, 생자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의 혼령에 관한 이야기가 대다수이다. 본고에서는 채택된 연구자료가 모두 귀신을 중요 제재로 삼고 있어 기존의 연구에서 통칭하고 있는 ‘귀신담’이라는 용어로 통일하였다.⁴⁾

기존의 귀신이야기에 관한 연구에서 ‘귀신’에 대한 엄정한 개념 정의가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⁵⁾ 본고에서는 연구자료에서 나타나는 인간이 죽은 후의 영혼, 물괴, 동식물의 정령, 정체를 알 수 없는 요괴 등을 귀신의 범주로 포함하여 논의하였다. 물괴, 동식물의 정령, 요괴 등이 서사 과정을 통해 보여주는 행위가 인귀와 공통적인 성격을 지니기 때문이다.

귀신담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서사 장르를 넘나들며 상당한 성과가 축적되었다.⁶⁾ 조선 전기 통치에 필요한, 지배적인 이념 수립과 사회질서 확

4) ‘영혼’이라는 용어보다 ‘귀신’이라는 용어가 본 논문에서의 연구자료를 포괄하여 지칭하기에 적절하다.

5) 귀신의 개념 정의에 도움이 될 만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임동권, 『귀신론』, 『어문론집』 10, 중앙대학교 국어국문학회, 1975.

김태근, 『민간의 귀신』, 『한국사상의 원천』, 박영사, 1976.

윤주필, 『귀신론과 귀신이야기의 관계 고찰을 위한 시론』, 『국문학론집』 15, 단국대 국어국문학과, 1997, 163~171쪽. “2. 귀신이야기에 등장하는 이계적 존재의 유형”의 논의가 좋은 참고가 된다.

앞으로 귀신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더욱 확장되고 개념 정의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있는 후에야 정리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6) 귀신담에 관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은 논문에서 정리되고 있다.

윤혜신, 『〈어우야담〉소재 귀신담의 귀신과 인간의 교류방식과 특징』, 『민족문화사연구』 34, 민족문화사학회, 2007, 209~210쪽.

윤혜신, 『〈於野談〉소재 鬼神譚의 트라우마(trauma)적 성격』, 『大東文化研究』 63,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院, 2008, 220~230쪽.

림에 있어서 귀신론이 중요하게 맞물려 있어서, 연구자들이 귀신론과 그와 관련 있는 귀신이야기를 함께 주목하는 경우가 많았다. 『어우야담』 귀신담도 이 같은 관점에서 17세기 귀신이야기의 변모된 모습으로 고찰되었다.⁷⁾ 귀신론과 관련짓지 않고 조선조 필기 야담집에서 나타나는 귀신형상의 변화 양상을 통시적으로 고찰하면서 『어우야담』 귀신형상의 특징도 함께 규명했으며,⁸⁾ 조선 후기 필기·야담에 나타난 귀신관과 사후관을 사적으로 살피는 과정에서 『어우야담』 귀신담의 귀신의 성격과 귀신의 처소를 논하기도 했다.⁹⁾ 그리고 『어우야담』 귀신담을 대상으로, 귀신과 인간의 교류방식에 따른 유형 분류를 하고 귀신의 특징을 규명하기도 했고, 정신분석학적 접근으로 그 성격을 밝히기도 했다.¹⁰⁾

기존 논의에서는 『어우야담』 귀신담 전체 자료를 한꺼번에 다룬 논의는 없으며, 귀신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귀신이야기의 전체 서사 전개 양상으로서 보다 귀신의 성격에 주목하거나, 귀신이야기로서 주목하더라도 일부 자료에 국한되거나 이야기의 부분적인 구성 요소에 관심을 가지고 논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¹¹⁾ 본고에서의 접근 방식에 의해 기존

7) 정환국, 「17세기 이후 귀신이야기의 변모와 ‘저승’의 이미지」, 『고전문학연구』 31, 한국고전문학회, 2007.

8) 김정숙, 「조선시대 필기·야담집 속 귀신·요괴담의 변화 양상」, 『한자한문교육』 21,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08.

9) 강상순, 「필기·야담을 통해 본 조선후기의 귀신관과 사후관」, 『종교문화연구』 22, 한신대 종교와문화연구소, 2014, 151~167쪽.

10) 윤혜신(2007), 앞의 논문.

윤혜신(2008), 앞의 논문.

윤혜신, 「〈어우야담〉소재 귀신담의 귀신육망과 육망의 실현방법」, 『溯上古典研究』 29, 열상고전연구회, 2009.

11) 윤혜신(2007), 앞의 논문. 이 논문에서 비교적 많은 자료를 대상으로 이야기 전체 서사 양상에 주목하고 있으나 정신분석학적 접근을 하고 있어서 본고의 논의 방법과 논의 결과와는 전혀 다르다.

논의에서 드러낼 수 없었던 『어우야담』 귀신담의 서사적 성격과 중요한 의미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유몽인은 당대에서 경험의 폭이 광대하고 문제의식이 강렬한 저작자이다. 새로운 사회 현상에 대해서도 개방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선행 연구에서 『어우야담』 귀신담이 그 이전 시기와는 다른 17세기의 변화하는 귀신이야기의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시대상황과 관련지어 밝히고 있음을 앞서 언급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도 본 연구의 의의를 더할 수 있을 것이다.

2. 『於于野譚』 所載 鬼神譚의 서사 전개 양상

『어우야담』 귀신담의 전모와 실상을 파악하고 그것을 통하여 드러나는 의미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서사 전개 방식을 중심으로 자료를 분류한 후에 서사 양상을 분석하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구 자료는 읽기만 해도 대체로 이야기의 유형성이 있다는 것을 쉽게 간파할 수 있다. 귀신담은 모두 중심 서사 전개가 인간과 귀신(혹은 사후 세계)과의 만남으로 이루어진다. 이 때 둘이 만나는 방식에 따라 서사 전개 방식도 달라지고, 서사의 주관심사도 달라진다. 연구자료들은 이러한 인간과 귀신의 만남 방식을 기준으로 유형을 이루고 있다.¹²⁾ 『어우야담』 귀신담에 내포된 중요한 의미를 전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할 때도 이러한 유형성을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할 때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파악된다.

12) 임재해, 「귀신설화에 포착된 인간과 귀신의 만남 양상과 귀신인식」, 『구비문학연구』 25, 한국구비문학회, 2007, 1~53쪽. 이 논문에서는 구비설화를 대상으로 인간과 귀신의 만남 양상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구비설화와 문헌설화의 귀신담이 공통되는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고와는 연구 자료뿐 아니라 연구 방향도 다르다.

40편의 자료를 인간과 귀신(혹은 사후 세계)의 만남 방식을 기준으로 분석하면 여섯 종류의 서사 전개 방식으로 구분된다. 만남의 방식을 제목으로 제시하였다. 만남의 방식이 서사의 주된 관심사를 보여주기도 한다.

1) 인간이 사후 세계를 확인

사람이 사후 세계를 확인하는 이야기는 총 3편으로, 이야기 분량도 적고 서사 전개가 단순한 편이다. 인간이 사후 세계를 접하고 확인하는 만남의 양상을 보이는 귀신담의 서사 전개 방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사후 세계 경험의 계기
- ② 사후 세계 경험
- ③ 증언
- ④ 사실 입증

124 <고경명위순창군수(高敬命爲淳昌郡守)>에서 주된 서사적 관심은 군수 고경명이 죽은 후에 저승에 갔다가 다시 살아나서 저승의 실재를 증언하고 입증하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저승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인간과 죽음의 세계와의 만남도 단순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그는 역질로 죽게 되어 사후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 그는 죽은 후에 사자(使者)의 인도로 한 관부(官府)에 도착했는데 관인이 그가 잘못 불러간 것을 확인하고 돌려보냄으로써 사후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 돌아오면서 길가 민가(民家)에서 무당을 만났더니 무당이 그가 군수임을 알아보았다. 그는 깨어나서 자신의 경험을 사람들에게 증언하였다. 그리고 나서 종자를 민가에 보내어 무당에게 사실임을 확인함으로써 사후 세계가 실재한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 125 <명원군종실인

야(明原君宗室人也)>도 124와 비슷한 내용으로 동일한 서사 전개 방식을 보여준다. 156 <이집중자음관야(李執中者蔭官也)>는 저 세상의 즐거움을 말하는 유혹자의 말을 따라 스스로 목을 매었다가 다른 사람에 의해 다시 소생한 두 개의 삽화가 나란히 병치되어 있다. 저 세상의 실재에 대한 가능성을 같은 서사 전개 방식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이다.

2) 인간이 귀신 존재를 확인

인간과 귀신의 만남 양상이 귀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어진 귀신담은 다음과 같은 서사 전개 방식을 보인다. 서사가 단순한 짧은 이야기이지만 작품이 많은 편이다. 모두 8편의 자료가 있다.

- ① 귀신과 만날 수 있는 상황 제시
- ② 귀신과 만남
- ③ 사실 입증

132 <민기문위승지시(閔起文爲承旨時)>에서는 승지 민기문이 새벽에 대궐에 나아가다가 말 위에서 즐면서 귀신을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된다. 그는 조는 중에 문득 죽은 친구를 만났는데 제사 흠향을 하고 돌아간다고 했다. 민기문은 이상히 여겨 사람을 시켜 확인했더니 친구의 아들이 이 날이 아버지의 제삿날이어서 제사상을 막 물렸다고 했다. 끝으로 귀신이 존재하며, 또 제사도 흠향한다는 믿기 어려운 사실이 확인을 통하여 사실로써 입증되고 있다.

137 <청송선생성수침(聽松先生成守琛)> 138 <정한림백창약관독서산사(鄭翰林百昌弱冠讀書山寺)> 등에서는 학식 높은 실존인물인 선비들이 산 속 외진 공간에서 홀로 기이한 물체, 즉 사후 존재인 괴귀(怪鬼)

의 존재를 목격한다. 공통되는 서사 전개 방식을 보이고 있다. 이밖에도 동일 유형의 귀신담이 5편 더 있다.¹³⁾

3) 인간이 귀신의 문제 해결

사람과 귀신의 만남 양상이 사자(死者)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주된 관심을 두고 있는 이야기는 다음과 같은 순차적인 서사단락으로 전개 된다. 해당 자료들은 7편이고 귀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모두 억울하거나 애통한 죽음 때문인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그 죽음의 원인이나 해결 방식은 다양하다. 귀신은 모두 인귀(人鬼)이나 그 성격 또한 다양하다.

- ① 귀신 출현의 전제 조건
- ② 귀신이 생자(生者)에게 나타나 자신의 문제 해결
- ③ 사실 입증

대표적인 예로 143 <만력갑오즉병후익년야(萬曆甲午卽兵後翌年也)>를 분석한다. 이 이야기에서 “만력 갑오년(1594)은 전란 이듬해이다. 온 나라에 기근이 들어 사람들이 서로 잡아먹고 굶어죽은 시체가 길에 널려 있었다.”¹⁴⁾로 시작되는 초두는 귀신이 나타나게 되는 사정을 제시하고 있다. 피난길에서 서울로 돌아온 선비 박엽은 밤중에 길에서 만난 미녀를 따라 그녀의 집으로 간다. 두 사람은 즐기다가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 박

13) 134 <진사박제생(進士朴悌生)> 136 <오가유일비명의신장(吾家有一婢名倚新粧)> 144 <시어소경운궁승정원(時御所慶運宮承政院)> 146 <임진지란통제사이순신(壬辰之亂統制李舜臣)> 533 <박형개명숙(朴洞改名淑)>

14) 이하 논문 본문의 번역문 인용과 각주의 원문 제시는 다음 저서에 의거한다.

유몽인, 『어우야담』, 신익철 외 3인 역주, 돌베개, 2006.

유몽인, 『어우야담 : 원문』, 돌베개, 2006.

“萬曆甲午卽兵後翌年也。舉國飢饉人相食餓殍 相藉於路。”

엽은 새벽에 깨어 여자가 죽은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집은 선비 집 안이었는데 한 처녀가 나이가 차서 병들고 굶주려 죽었다. 박엽은 애처롭게 여겨 장사 지내준 후에 제사도 지내주었다. 전란 후 기근 속에서 미녀 귀신이야말로 말할 수 없이 극심한 결핍 상태에 놓여 있었다. 처녀귀신만으로도 원귀로 취급되는데 거기다 병들고 굶주렸으며, 매장되지도 못했다. 이러한 심각한 결핍을 호탕한 의기 남아 박엽이 모든 것을 해결해준다. 처녀로 죽은 한도 박엽과의 하룻밤으로 충족된다. 또 이야기 말미에 “박엽은 과거에 급제하여 ‘지금은’ 가선대부(嘉善大夫)로 의주(義州)부윤(府尹)이 되었다.”¹⁵⁾로 기술되고 있는데 이는 사실임을 입증하는 기능을 가진다.¹⁶⁾ 허탄하게 여겨질 수 있는 이야기가 당시 실존 인물, 박엽이 겪었던 실제 사실임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해당 자료에서 모든 사자(死者)는 자신에게 뭔가 해결해야 할 절박한 문제가 있을 때 나타나서 생자의 도움을 받아 해결한다. 절박한 문제는 한결같이 원통한 죽음이 개재될 만큼 심각한 것이다. 해당자료가 6편 더 있다.¹⁷⁾

4) 귀신이 인간을 도움

7편의 이야기는 만남의 양상이 귀신이 산 자를 돕는 것을 주된 서사 과

15) “燁登第‘今’以嘉善大夫方爲義州府尹.”

16) 145 <유일무사습사우훈련원(有一武士習射于訓練院)>에서도 한 무사와 미녀귀신 종랑과의 사이에서 동일한 사건과 동일한 서사 전개 방식이 펼쳐진다.

17) 126 <용천역제황해도로방(龍泉驛在黃海道路傍)> 128 <임진지란병조좌랑이경류(壬辰之亂兵曹佐郎李慶流)> 129 <만력임진계사간(萬曆壬辰癸巳間)> 130 <유진기경자유소사(有陳耆卿者有所事)> 145 <유일무사습사우훈련원(有一武士習射于訓練院)> 154 <북교무사귀신제(北郊無祀鬼神祭)> 등의 자료도 모두 동일한 서사 전개 방식을 보이고 있다.

제로 삼고 있다. 귀신은 모두 인귀로 나타난다. 다음과 같은 공통된 서사 전개 방식을 나타낸다.

- ① 생자의 위기나 어려운 상황 제시
- ② 귀신이 생자를 도움
- ③ 사실 입증

120 <유대수고판서유강지손야(俞大修故判書俞絳之孫也)>에서 유대수는 시묘살이를 하고 있는데 종이 원한을 품고 그를 죽이려 했다. 이러한 생자(生者)의 위기가 이야기 초입에 먼저 제시된다. 다음 주된 서사는 할아버지 신령이 도와서 위기에 처한 손자의 목숨을 구하고 손자를 죽이려 했던 종도 잡는 내용으로 펼쳐진다. 마지막에 “사람들은 모두 말했다. 유강의 신령이 그를 무덤 위에 붙잡아 놓고 달아나지 못하게 했으니 기이한 일이다!”¹⁸⁾라는 서술을 덧붙이고 있다. 이는 주된 서사적 관심이 기이한 신령의 도움에 있음을 거듭 확인하고 또 서사 내용이 사람들에게 의해 사실로써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나머지 6편도 공통되는 서사 전개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¹⁹⁾

5) 귀신이 고관대작을 범하지 못함

여기에 해당하는 자료가 2편이기는 하지만 상당히 흥미로운 이야기여

18) 人皆曰: “絳之神 擊致墳上 使不得逃[通]창·국·고·만 異哉!”

19) 122 <부제학유숙대부인이씨(副提學柳瀟大夫人李氏)> 123 <홍중성조상실(洪仲成 早喪室)> 131 <음성인김용만력갑오위구관(陰城人金容 萬曆甲午爲求官)> 133 <경성유일재상이청백명(京城有一宰相以清白名)> 135 <병사김우서부망(兵使金 禹瑞父亡)> 531 <이상국자상명항복(李相國子常名恒福)> 이 중에서 135는 약간의 변형을 보이고 있으나 귀신이 생자를 돕는 것이 핵심 서사 과제여서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다.

서 눈길을 끈다. 귀신과 고관대작의 만남이라는 중심 서사에서 주된 관심은 귀신도 고관대작은 범하지 못한다는 것에 모아지고 있다. 서사 전개 방식은 다음과 같다.

- ① 귀신 출현 동기
- ② 저승 사자(使者)가 고관대작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감
- ③ 사실 입증

141 <권람소시문우인염병(權擘少時聞友人染病)>은 사건 전개가 사뭇 흥미진진하다. 권람은 젊었을 때 친구 가족이 모두 전염병에 걸려서 구제될 길이 없자, 식구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약을 가지고 구원하러 갔다. 온 가족이 이처럼 역병에 걸려 구제할 수 없는 상황은 귀신이 출현할 수 있는 동기가 되고 있다. 권람은 친구와 자다가 밤중에 깨어나 친구가 피해 도망간 것을 알고 밤이 아직 일러서 바깥채로 나와 잠이 들었다. 두 귀신이 들어와 그를 보고 “권정승이니, 침범할 수가 없다.”²⁰⁾하고 다시 구석진 마을에 이르러 도망간 친구를 발견하여 잡아갔다. 이 때는 권람이 정승이 되기 전 젊은 날인데 귀신들은 권람의 앞날을 예견하고 정승이어서 침범할 수가 없다고 말한다. 귀신도 정승감을 함부로 범하지 못하고 있다.²¹⁾ 마지막으로 첨가한 유몽인 평설이 사실 입증의 기능을 하고 있다. 142 <한준겸이평안방백조외우(韓浚謙以平安方伯遭外憂)>에서도 동일한 서사구조를 찾을 수 있다.²²⁾ 한준겸은 평안방백으로서 국법에 위반되는 일을 했는데도 귀신이 범하지 못하고 그를 대신하여 아들을 데려간다.

20) “權政丞也不可干 ”

21) 한국정신문화연구원(편), 『한국인물대사전』, 중앙일보 출판법인 중앙 M&B, 1999, 144쪽. 권람은 1450년(문종 즉위년) 식년문과 장원급제자이며, 계유정난 때 1등 靖難功臣으로 세조 때 좌의정 직위까지 이른 인물이다.

22) 뒤에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6) 귀신이 인간에게 해 끼치기

이에 해당되는 자료는 13편으로 가장 많다. 그 성격이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귀신이 나타나 사람에게 해악을 행하여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이고 둘째는 귀신이 사람에게 해악을 행하는 것만을 내용으로 하는 이야기이다. 13편 중 6편은 인귀(人鬼)가 아닌 괴귀(怪鬼)가 나타난다.

먼저 귀신이 해악을 행하여 귀신을 축출하는 이야기부터 분석한다. 공통되는 서사 전개 방식은 다음과 같다. 5편이 이에 해당된다.

- ① 귀신에게 침해당하는 인물 제시
- ② 귀신이 생자에게 해 끼치기
- ③ 귀신 축출 처방 얻기
- ④ 귀신 축출 성공
- ⑤ 사실 입증

이에 해당하는 자료는 초두에 귀신에게 침해당하는 공간이나 인물이 먼저 제시된다. 149 <경성소공주동재남부(京城小公主洞在南部)> 이야기 첫머리는 “경성의 소공주동은 남부에 있는데 그곳에 신막정(申莫定)의 집이 있다. 그 집은 늘 비어 있고 주인도 없어서 다른 사람이 임시로 빌려 살고 있었다.”²³⁾로 시작된다. 귀신이 나타나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공간을 먼저 부각시키고 있다. 신막정의 집은 처음에 주인이 새로 사서 살았는데 귀신이 나타나 음식 요구나 잠자리 방해 등으로 끊임없이 괴롭혔다. 이에 주인이 방사(方士)로부터 귀신을 죽이는 처방을 얻었다. 주인이 처방대로 들쥐고기를 먹였더니 귀신이 나가서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

23) “京城小公主洞在南部. 有申莫定家. 其家常空無主. 假他人僑居.”

다. 성공적으로 귀신을 축출하게 된 것이다. 마지막에 “내 만형이 일찍이 그 집에 붙여 살았었는데 집주인의 하녀에게 자세히 물어 보니 헛말이 아니었다.”²⁴⁾라고 서술하고 있다. 유몽인이 만형을 통해, 자신이 직접 사실임을 확인하고 있다.

이 밖에 4편의 자료가 더 있다. 이 유형에서는 사실입증의 단락이 약화되는 현상을 보인다.²⁵⁾

귀신을 축출하려는 시도 없이 귀신이 해를 끼치는 것만으로 나타나는 자료가 7편이다. 축출하려다 실패하는 자료가 1편 있는데 끝까지 해를 당한다는 공통성을 지니고 있다. 8편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은 서사 전개 방식을 보인다. 초두에서 피해 공간 제시와 함께 귀신이나 피해자가 제시되기도 한다. 다른 유형과는 다르게 피해 공간이 부각되는 경향이 특이한 점이다. 그리고 8편 중 6편은 끝부분에서 사실입증이 없고 2편에서만 사실 입증을 하고 있다.

- ① 피해 공간 제시
- ② 귀신이 생자에게 해 끼치기

다음 2편의 이야기는 귀신의 해악으로 사람이 희생되는 전개를 보이고 있다. 147 <만력계미동참봉신우안(萬曆癸未冬參奉申友顔)> 첫머리에 서 신우안과 함께 그가 이원여의 집을 빌려 기숙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제

24) “吾伯兄嘗僑寓其室. 仍主婢細問其不虛矣.”

25) 148 <원사안소경대왕조문관명사야(元士安昭敬大王朝文官名士也)> 150 <황건중당지자야(黃建中宕之子也)> 155 <전라도사김모재전주남청(全羅都事金某在全州南廳)> 520(만종재본 522) <김뉴능문장(金紐能文章)>도 공통되는 서사 전개 방식을 보여준다. 148, 520은 사실 입증의 단락이 없다. 150, 155는 사실입증의 기능이 약화되어 나타난다.

시되고 있다. 이처럼 피해자와 피해 공간이 먼저 서술되고 있다. 이 집에서 신우안은 귀신에 의해 불러나가 죽는다. 그의 본 집은 옛날 재상이 살던 집이다. 이전에 재상이 살던 집에서 귀신이 재상의 딸을 불러내어 아내로 삼으려고 죽게 만들었다. 서로 다른 두 사건을 신우안이 살던 집을 매개로 연이어 기술함으로써 재상의 집과 관련된 귀신이 이원여의 집을 찾아가 신우안도 죽게 만든 것으로 독자들로 하여금 추측하게 한다. 153 <낙산하소용동유과녀안씨(駱山下所用洞有寡女安氏)>에서는 자녀 없이 죽은 과부가 자신의 집에 살고 있는 조카 가족에게 나타나 무섭게 괴롭혔다. 수년 동안 죽는 자가 계속 이어져 폐가가 될 정도였다. 서사 전개 방식은 동일하다. 두 편 모두 말미에 사실 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 동일한 서사 전개 방식을 보이는 귀신담이 6편 더 있다.²⁶⁾

3. 『어우야담』 소재 귀신담의 서사 전개 양상의 의미

『어우야담』 소재 귀신담의 서사 전개 양상을 통하여 나타나는 의미는 이야기를 주고 받던 당대인들의 의식을 바탕으로 하면서, 유몽인의 작가 의식을 보여준다. 『어우야담』은 시대를 앞서가는 유몽인의 투철한 작가 정신에 의해 저술된 초기 야담집이다. 유몽인은 자기가 직접 경험한 일, 身邊事, 見聞 등을 기술했고, 극히 일부인 수편의 이야기에서 전대 문헌을 참고한 흔적이 나타난다. 그는 새로운 저서를 저술한다는 입장에서 거의 모든 이야기를 자신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을 드러내고자 하는 저술의

26) 127 <황대임순회세자빈지부야(黃大任順懷世子嬪之父也)> 151 <국초설성군관동서재각십여간(國初設成均館東西齋各十餘間)> 152 <이경희유귀작요(李慶禧有鬼作妖)> 532 <석자고려공양왕사어삼척(昔者高麗恭讓王死於三陟)> 554 <연산유여별업(連山有餘別業)> 556 <고산현유여선묘(高山縣有餘先墓)>

도를 가지고 독창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읽는 재미와 함께 世敎를 목적으로 하여 事實性 지향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역사기술적인 정확성에 구애 받지 않고 이야기 속에 담긴 문학적 진실성을 추구하는 것을 중시하였다.²⁷⁾ 이와 같이 조선조 후기 야담집과는 달리 『어우야담』은 유몽인의 작가의식이 뚜렷하게 강화되어 나타나는 기본 성향을 지니고 있다. 귀신이 이야기도 동일한 현상을 나타낸다. 유몽인이 직접 경험하거나 주변에서 일어난 일, 민간에서 주고받던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하여 작가가 지향하는 의미를 적극적으로 구현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작가의식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된다.

앞 장에서 6) 유형만 제외하고 1)에서 5)까지 다섯 유형 모두가 사실입증의 마지막 서사단락을 보유하고 있음을 논증하였다. 귀신에 관한 믿기 어려운 초현실적인 이야기를 작가가 증거를 제시하며 실제 사실로 입증한다는 것은 이야기를 사실로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귀신담에서 나타나는 의미지향을 우선적으로 작가의 몫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미이다. 6) 유형에서는 사실입증 기능이 없지만 152 말미에 있는 논평에서 6) 유형 전체 이야기에 해당하는 작가의 직접적 발언을 통하여 작가의식이 부각되고 있다. 그리고 이야기 속에서 귀신이나 사후 세계를 경험하는 인물들이 대다수 유몽인과 동시대 벼슬아치들로서 실명이 거론되어 사회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인물들이다.(127, 128, 129, 126, 132, 143, 120, 531, 122, 142 등) 그리고 유몽인이나(134) 그의 주변인물 이(136, 149, 156, 531 등) 직접 경험한 이야기들도 꽤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이야기의 사실로서의 신빙성을 더욱 높여주어 작가가 귀신담을 사

27) 이경우, 「초기야담의 문학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1, 26~116쪽.
신익철, 「『어우야담』의 서사방식과 초기 야담집으로서의 특성」, 『정신문화연구』 제 33권 제3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10~30쪽.

실로서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준다.

1) 삶의 정도(正道) 지향의식

2장에서의 서사 전개 양상 분석 내용을 보면 죽음 이후의, 세계와 존재에 대해 이 지상의 삶과는 다른 면이 있기는 하지만 매우 밀접한 관련 속에서 상상력을 펼치고 있다. 그리고 저 세상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제언하고 있다.

『어우야담』 귀신담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는 의미 志向은 우선 인간의 도리를 다할 것을 보여주고, 살았을 때의 격심한 원통함은 풀어주고 달래주어야 하며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할 것을 절실하게 호소하고 있다. 즉 삶의 바른 길(正道)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의 의미는 3) 인간이 귀신의 문제 해결 4) 귀신이 인간을 도움 유형에서 서사의 주된 관심사로 가장 직접적으로 잘 드러난다.

3) 인간이 귀신의 문제 해결 유형에 해당되는 7편 모두가 冤痛한 죽음이 중요 제재가 되고 있다. 서사의 초점은 귀신이 나타나 자신의 억울한 죽음을 생자에게 알리고 생자의 도움을 받아 원통함을 푸는 데에 맞추어지고 있다. 죽은 자들은 저 세상의 문제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문제 때문에 저 세상에서도 편안하지 못하여 이 세상으로 찾아와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죽음의 원통함은 현실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죽은 자가 귀신이 되어 나타나 원통함을 풀거나 삶의 여러 가지 잘못을 바로 잡는다. 그리하여 인간의 도리가 제대로 행해지게 한다. 128에서 이경류는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병조좌랑으로 출전하여 상주관관 권길과 함께 전사하였다. 앞날이 창창한 인재로 1591년 식년문과 을과에 급제한 이듬해에 28세 꽃다운 나이

로 전사했으니²⁸⁾ 그 안타까움과 애통함이 사자(死者)를 저승으로부터 불러내고 있다. 이경류는 형에게 사후에 나타나 하루 착오가 난 제삿날을 바로잡고 3년간 식구들과 왕래하며 그 한스러움을 달래며 원통함을 풀고 있다. 129에서는 임란 중 왜군에 의해 살해당한 아들을 위해 이순신 장군이 복수하고 있다. 126에서는 부당한 정치적 처형의 억울함을 호소하여 위로 받고 있고, 130에서는 포악한 종에게 살해당한 주인이 죽어서도 복수를 실행하면서 잘못을 바로 잡고 억울함을 해소하고 있다. 143, 145에서는 전란과 역질로 죽은 처녀의 장례와 제사, 未婚의 문제를 의기 있는 男兒를 통하여 해소해주고 있다. 154에서는 難産으로 죽은 귀신이 북쪽 교외 제사에서 빠진 것을 바로잡고 있다.

4) 귀신이 인간을 도움에 해당되는 총 6편의 자료에서는 조상이나 부모가 죽어서도 후손이나 자식에 대한 도리를 다하는 것을 보여준다. 120, 531에서는 조상신이 생명을 잃을 위기에 처한 후손을 구한다. 122, 123, 133에서는 자식에게 할 바를 못 다하고 죽은 부모의 심정이 중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135에서는 부친 혼령이 나타나 자식과 집안일을 여러모로 돕는다.²⁹⁾

삶의 정도를 지향하는 의식은 앞의 자료 이외의 이야기 속에서 서사의 부수적인 관심사로도 널리 드러난다. 5) 귀신이 고관대작을 범하지 못함 유형 총2편에서는 서사적 주관심사에 곁들여져 사람의 잘못을 정치하고 正道로 살아야함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 밖에도 1) 인간이 사후 세계를 확인 2) 인간이 귀신 존재를 확인 유형에 해당하는 일부 자료에서도 저승

28)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9), 앞의 책, 1473쪽. ‘이경류(李慶流)’

29) 131 <음성인김용만력갑오위구관(陰城人金容萬曆甲午爲求官)> 역질에 걸려 죽은 선비 김용이 死境에 처한 表弟가 살아나도록 돕는다. 사건 전개의 인과관계가 없어서 이야기로서의 흥미가 별로 없고, 단순히 표제를 살렸다는 의미만 보여준다.

과 혼령의 존재를 확인하면서 부수적으로 조상신을 잘 위하고 제사를 잘 지내는 도리를 다할 것을 말하고 있다.(124, 125, 132, 134, 136)

6) 귀신이 인간에게 해 끼치기 유형에 속하는 13편 자료 전부에서는 여러 가지 성격의 귀신이 생자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중심적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이들 자료에서는 표면적으로는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正道로 살아야 한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서술의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³⁰⁾

해를 끼치는 존재는 여러 가지 성격으로 나타난다. 괴상하게 생긴 귀신(149), 형상은 없고 사람 같지는 않은 물체(153), 울개 귀신(148), 여우정령 귀신(150), 기생 귀신(155), 매미소리 귀신(152), 자식 없는 과부 귀신(153) 등으로 나타난다. 알 수 없는 귀신 혹은 동물정령 등의 사악한 존재들이거나, 기생이나 자식 없는 과부로 고단한 처지에 있었던 인물들이다.

사악한 귀신들은 식욕, 성욕 등 본능에 관여되는 것을 비롯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해를 끼치며 심지어 목숨까지도 빼앗는다. 생자의 삶이 파탄에 이를 때까지 어떠한 방어에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해를 끼치는 그럴 만한 사유가 제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악을 당하는 생자들은 공통성이 없다. 다양한 처지의 인물들이 나타난다. 귀신에 의한 생자들의 치명적인 피해는 이처럼 납득하기 어렵다.

152에서 유몽인은 말미에 논평을 하면서 그의 귀신관을 다음과 같이 직접 밝히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까닭 없이 악귀의 폐해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지만 正道로 살면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다.

30) 5) 귀신이 생자에게 해 끼치기에 속하는 13편 자료 중에 127 <황대임순회세자빈지부야(黃大任順懷世子嬪之父也)>와 532 <석자고려공양왕사어삼척(昔者高麗恭讓王死於三陟)> 두 편만 생자에게 해를 끼치는 원인이 나타나서 정도지향의식이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 그 사이 살아 있을 때 원한을 품으면 기가 흩어지지 않고서 인간에게 요사를 부리는 것이 있는데, 이는 천백 가운데 한둘도 못 되는 것이다. 다만 사물이 오래되면 영기를 품고 형상을 빌려, 곤충·초목·조수·어벌魚鼈의 정령과 더불어 능히 기를 내어 허상虛狀을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 기운은 사악한 것이라 스스로 바른 것은 침범하기 못하니, 이른바 사악함이 바른 것을 범하지 못한다는 것이 어찌 빈말이겠는가!³¹⁾

이상과 같이 유몽인은 대다수 귀신담에서 서사적 주관심사로, 부수적 문제로, 바탕의식 등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삶의 정도 지향의식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³²⁾ 유몽인은 귀신담이 사실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작품 말미에서 사실임을 입증함으로써 이러한 주제의식의 진지성을 확보하고자 한다.³³⁾ 34)

2) 사회 현실의 문제 제기와 극복의식

귀신담 40편 중에 15편에서 유몽인은 사회적인 문제를 중요 소재나 배경으로 삼고 있다. 전체 연구자료에 비해 큰 비중을 차지하는 편이다. 이는 귀신이야기를 통해 사회적인 문제를 제기하여 극복하고자 하는 저술 의도가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장 비현실적인 존재의

31) “其間生爲含冤. 氣不散作妖人間. 千百中不一二焉. 獨物之久者含靈假狀. 與昆蟲草木鳥獸魚鼈之精. 能生氣爲虛狀者比比有之. 其氣本邪自不干正. 所謂邪不干正者豈虛語哉.”

32) 이경우(1991), 앞의 논문, 83쪽. <어우야담> 저술의도는 세교에 보탬이 되고 사람들이 즐겨 보도록 하는 것이다. 귀신담에서도 분석결과 이러한 저술의도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3) 이에 대해서는 2장 서사전개양상 분석에서 충분히 제시되었다.

34) 유몽인은 “古人之魂 古人之心也 今人之魂 今人之心也”라 하여 귀신은 곧 당대인의 마음을 반영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신익철, 『어우야담』의 창작 정신과 서사 방식, 『유몽인 문학 연구』, 보고사, 1998, 251쪽.

이야기에 가장 절실한 사회현실의 문제를 결부시킴으로써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강렬하게 부각시키고 있다. 3) 인간이 귀신의 문제 해결 유형에서 사회 현실의 문제가 가장 집중적으로 또 가장 강렬하게 제기되고 있다. 해당 이야기가 모두 7편인데, 모두가 사회 현실의 문제를 중심 문제로 흥미롭게 형상화하면서 감동을 전하고 있다. 그 밖에 다른 유형의 일부 자료에서도 사회적인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다.

제일 빈번하게, 그리고 강렬하게 제기 되고 있는 것이 임진왜란의 참상과 그로 인한 사회적 문제들이다. 143 <만력갑오즉병후익년야(萬曆甲午 卽兵後翌年也)>에서는 의기 남아 박엽과 아름다운 처녀와의 인연과 사연이 매우 흥미롭게 그려지고 있다.³⁵⁾ 미녀는 선비 집안의 장성한 딸로 굶주림으로 병들어 죽었으며, 온 집안 사람들도 굶어 죽어서 집안에 없어진 시체가 가득했다. 한 집안을 이 지경에 이르도록 한 연유는 이야기 초입에 서술된다.

만력 갑오년(1594, 선조 27)은 전란이 일어난 다음 해다. 온 나라 사람들이 모두 굶주려 서로 잡아먹기도 했으며, 굶어 죽은 시체가 길에 가득하였다. 유생 박엽이 지방에 피난하였다가 서울에 돌아오니 옛집은 쭉대밭이 되어 있었다. 빈 집채에 머물며 굶주림에 시달려서 정신마저 멍하고 흐릿했다.³⁶⁾

이 이상 더 참혹할 수가 없을 것이다. 1592년 4월에 왜적이 침입한 후 전 국토를 피와 시체로 뒤덮었다. 인용문에서와 같이 실제로 그 당시 “조선 전역이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었으며, …… 전염병이 창궐해 살아남은 사람도 별로 없었다. 심지어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잡아먹고 남편과 아내

35) 이에 관한 구체적인 서사전개 양상을 앞에서 이미 분석하였다.

36) “萬曆甲午, 卽兵後翌年也. 舉國飢饉, 人相食, 餓孚相藉於路. 儒士朴燁, 避難於外. 新還京都, 故室蓬蒿, 止舍隙宇, 困於窮餒, 精神虛乏.”

가 서로 죽이는 지경에 이르러 길가에는 죽은 사람들의 뼈가 잡초처럼 흩어져 있었다.”³⁷⁾ 이러한 극한의 처참한 상황들이 몇 구절로 요약 제시되어 있다. 143은 바로 이같은 전쟁 중의 문제적 상황을 처녀귀신을 통하여 집약하여 제시하고 있다. 처녀 귀신은 직접 나서서 남자를 유혹하여 적극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호소하고 있다. 기근, 질병, 장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주검 등을 제시하고 박엽이라는 인물을 통하여 처녀의 한을 달래주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할 대규모의 사회 문제가 이야기 속에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지극히 비현실적인 방식으로 해결이 모색되고 있다. 처절한 문제적 상황을 극복하고 싶어 하는 기대가 담겨진 것으로 읽혀진다.

129 <만력임진계사간(萬曆壬辰癸巳間)>에서는 임진왜란 당시 원통하게 죽은 아들을 위해 이순신 장군이 복수하고 있다. 아들은 아버지 꿈에 온몸에 피를 흘리며 나타나 생포된 왜적 가운데 자신을 죽인 놈이 있다고 알렸다. 영웅 이순신이 나라를 구하는 사이에 그 아들은 적의 손에 무참히 죽어야 했다. 패망의 위기에서 나라의 운명을 구한 이순신에게에 독자들로 하여금 더욱 마음 저리게 한다. 146 <임진지란통제사이순신(壬辰之亂統制使李舜臣)>에서는 임란 중에 전사한 수많은 혼령들이 의탁할 가족도 없어서 나무에 의탁하고 있다. 모두 전쟁이 빚어낸 기막히고 통절한 사정들이다.³⁸⁾

임란의 참상 다음으로 많이 나타나는 사회적 문제는 역질로 인한 처절한 죽음과 문제적 상황이다. 145 <유일무사습사우훈련원(有一武士習射

37) 유성룡, 『징비록』, 김홍식 역, 서해문집, 2014, 185쪽. 1593년 진주성이 함락된 후 10월 무렵, 조선의 상황을 유성룡은 이와 같이 증언하고 있다.

38) 이 밖에 임란의 실정과 통환을 보여주는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128 <임진지란병조좌랑이경류(壬辰之亂兵曹佐郎李慶流)> 556 <고산현유여선묘(高山縣有余先墓)>

于訓練院) > 은 앞의 143과 흡사한 이야기 유형이다. 동일한 유형을 변형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145에서는 143과는 달리 서사의 중심 사건이 역병으로 인해 전개된다. 한 무사가 어여쁜 남자의 유혹에 이끌려 그녀의 집에서 하룻밤 곡진한 정을 나누었다. 새벽에 일어나서 이웃집 여인으로 부터 그 집은 온 집안이 전염병에 걸려, 죽은 시체가 가득하고 남자가 죽은 지도 벌써 사흘이 지났지만 아직 염도 하지 못했다고 들었다. 무사는 다시 그 집으로 들어가 그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무사는 “필시 죽은 남자가 염도 못하고 있음을 스스로 슬퍼하다가 내가 의기가 많음을 알고 나를 시켜 장사를 지내고자 한 것일 게야.”³⁹⁾라고 생각했다. 그는 관과 상여를 마련하여 장사 지낸 후에 제사상을 잘 차려 제를 지내고 돌아갔다.

전염병은 온 집안의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갔는데 그 누구도 수습할 사람이 없었다. 이같은 극도로 심각한 문제적 상황 속에서 남자는 귀신이 된 후라도 사태를 해결할 방도를 찾아 직접 나설 수밖에 없었다. 무사는 그의 의기로 남자 귀신의 호소에 부응했다. 개인적인 차원이긴 하지만 남자의 역병으로 인한 통환이 달래지고 풀어지고 있다. 그 해결이 비현실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저술자는 역병으로 인한 사회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이 극복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⁴⁰⁾

전염병의 경우, 자료에 의하면 16, 7세기와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전반 사이가 특히 심했다고 한다. 특히 16세기에 치성한 역병은 엄청난 사망 수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17세기 초에는 최초의 바이러스성 성홍열로 추정되는 唐毒疫이 크게 유행했다. 이와 같은 전염병의 창궐은 당대 전란

39) “亡娘必自悲無斂，知我意氣多，欲使之葬也。”

40) 124 <고경명위순창군수(高敬命爲淳昌郡守)> 125 <명원군종실인야(明原君宗室人也)> 131 <음성인김용만력갑오위구관(陰城人金容萬曆甲午爲求官)> 141 <권람소시문우인염병(權擘少時聞友人染病)> 등도 역질이 중요 제재가 되고 있다.

의 후유증과 무관하지 않다.⁴¹⁾ 이같은 전염병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었던 통렬한 현실이 귀신담에 그대로 수용되었던 것이다. 『어우야담』 집필 완성 시기가 1622년이었음을 생각하면 역병으로 인한 참담한 상황이 당시 사람들에게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되고 있었을 것이다.

다음으로 부각되는 사회 현실의 문제는 억울하게 비운에 죽은 정치적 인물에 관한 것이다. 126 <용천역재황해도로방(龍泉驛在黃海道路傍)>은 연산군대 정치적 사건이 바탕이 되고 있다. 성격이 강직해 부정한 권력에 굴하지 않은 홍귀달의 억울한 죽음이 부각되면서 그 원인을 위로하고 풀어주는 것에 서사의 초점이 모아진다. 홍귀달은 1504년 손녀를 궁중에 들이라는 왕명을 거역해 장형을 받고 경원으로 유배 도중 교살되었다.⁴²⁾ 532 <석자고려공양왕사어삼척(昔者高麗恭讓王死於三陟)>에서는 공양왕의 불운한 정치적 운명이 주목된다.⁴³⁾ 이같은 억울한 정치적 죽음이 귀신이야기로 형상화 되어 역사의 비극적 희생이 문제시 되고 있다. 유몽인은 정치적 인물의 怨恨에 관해서는 당대의 문제는 피하고 있다. 두 경우 모두 오래 전, 지난 역사의 인물을 제재로 삼았다. 유몽인 당대도 당쟁으로 권력다툼이 심각한 형국이었으니 민감한 것은 다룰 수 없었을 것이다. 유몽인 자신도 그러한 와중에 있었으니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이 밖에도 유몽인은 귀신담에서 주인을 살해하는 종의 정치,⁴⁴⁾ 難産死者를 국가적 제사에 수용하는 문제⁴⁵⁾ 高官의 잘못된 처사 징계⁴⁶⁾ 등의 사

41) 정환국, 「17세기 이후 귀신이야기의 변모와 ‘저승’의 이미지」, 『고전문학연구』 31, 한국고전문학회, 2007, 108쪽.

42)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9), 앞의 책, 2452~2453쪽. ‘홍귀달’ 홍귀달은 이조판서 호조판서를 역임한 뒤 좌참찬까지 올랐으며, 연산군대 험난한 정치적 상황에서도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43)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공양왕’ NAVER, 지식백과.

44) 120 <유대수고판서유강지손어(俞大修故判書俞絳之孫也)> 130 <유진기정자유소사(有陳耆卿者有所事)>

회적 문제에 관심을 보이면서 잘못을 바로잡고자 한다.

이러한 전란이나 역병 등의 사회 현실의 문제를 수용하면서 15, 6세기의 필기·야담집 속의 귀신담과는 크게 달라진 『어우야담』 귀신담의 새로운 양상은 주목할 만한 현상으로, 귀신담의 전환점이 되고 있다.⁴⁷⁾

3) 유교 불교 무속이 혼재된 귀신인식

『어우야담』 귀신담의 전체적인 서사 전개 양상을 통하여 귀신에 관한 저술자의 인식을 면밀히 읽어낼 수 있다. 귀신론은 조선조 전기에 통치 질서 확립 차원에서 논의가 중요시 되었다. 귀신이야기에 대한 견해는 곧 귀신론과 연관될 수 있다. 이야기를 통해 나타나는 귀신에 대한 어우의 입장을 규명할 수 있다면 당대 지배계층의 귀신론의 일단을 파악하게 되는 것이다. 나아가서는 『어우야담』 귀신담의 서사문학사적 위상을 보다 깊이 있게 정확하게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1) 인간이 사후 세계를 확인 2) 인간이 귀신 존재를 확인 유형에 해당하는 귀신담에서 사후 세계와 귀신의 존재에 대한 유몽인의 관심이 가장 단적으로 드러난다. 이에 관한 자료는 11편에 이른다. 이들 자료들은 서사 전개가 단순한 편이고 길어도 짧아서 이야기로서의 흥미성과 매력이 떨어진다. 그런데도 11편이나 서술하였다는 것은 그 분량만으로도 그가 그만큼 죽음의 세계와 귀신에 대해 관심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

45) 154 <북교무사귀신제(北郊無祀鬼神祭)> 冤鬼에게 지내는 제사인厲祭의 대상이 조선 초기에 12位였다가 세종 때에 3위(難産死者, 震死者, 墮死者)가 추가 되었던 사실을 반영하고 있는 귀신담이다.

조현설, 『조선 전기 귀신이야기에 나타난 神異 인식의 의미』, 『고전문학연구』 23, 한국고전문학회, 2003, 154쪽.

46) 142 <한준겸이평안방백조외우(韓浚謙以平安方伯遭外憂)>

47) 정환국(2007), 앞의 책, 106~109쪽.

인다.

내용상으로도 보면 그는 귀신과 사후 세계에 대해서 있을 수 없는 架空의 세계라고 치부하지 않고 있다. 134 <진사박제생(進士朴悌生)>에서 유몽인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일을 서술하고 있다. 그는 진사 박제생의 부탁을 받고 그의 장인을 위해 묘갈명을 써주었다. 그런데 그 글에 기록된 자가 대부분 죽은 자였다. 묘갈명을 보낸 날 밤 꿈에 해골 손님이 문을 메울 정도로 몰려와 감사하자, 잠에서 깨어난 유몽인은 자신도 모르게 정신이 번쩍 들고 머리카락이 곤두섰다. 원혼도 아닌 조상신의 감사 표현에 머리카락이 곤두섰다는 것은 유몽인이 꿈에 나타난 귀신들을 상당히 현실감 있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증좌일 것이다. 이처럼 죽은 지 오래된 귀신이 많이 몰려온 것은 사람이 죽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기(氣)가 천지간에 흩어지게 된다는 유교적 귀신관을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유몽인은 이를 현실감 있게 받아들이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이 밖에도 많은 자료에서 죽은 지 오래된 귀신이 생자와 동일하게 행위하고, 괴물의 형상을 한 귀신이 나타나며, 무덤에 불이나자 무덤 속 귀신이 “불이 났다”고 소리친다.(136)⁴⁸⁾ 유몽인은 136 말미에서 “지금 파주의 일을 보건대 사람의 영혼이 무덤에 의탁함은 의심할 바 없는 일이다. 장지(葬地)를 살피고 시묘살이 하는 일을 경계하고 삼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하고 평설을 첨가하고 있다. 『주자가례』의 실천과 함께 가묘를 중시했던 조정 정책과 달리 무덤을 귀신의 처소로 생각하는 전통적인 관념을 공공연히 지지하고 있다.⁴⁹⁾ 이와 같은 귀신에 대한 생각들은 전통적으로

48) 136 <오가유일비명의신장(吾家有一婢名倚新粧)>

49) 강상순(2014), 앞의 논문, 151~152쪽. 조선 건국 초기부터 『주자가례』의 실천을 적극 권장하면서 특히 사대부가에 家廟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처벌되기도 했다. 16세기에 도 가묘와 神魂을 중시하는 것이 『주자가례』의 원리임에도 불구하고, 사자의 시신이 묻히는 무덤을 귀신의 처소로 생각하는 전통적인 관념이 여전히 남아 여묘살이 같은

내려오는, 불교와 무속이 습합된 민간신앙적 차원의 인식과 부합된다.⁵⁰⁾

124 <고경명위순창군수(高敬命爲淳昌郡守)> 125 <명원군종실인야(明原君宗室人也)> 141 <권람소시문우인염병(權擘少時聞友人染病)> 142 <한준겸이평안방백조외우(韓浚謙以平安方伯遭外憂)> 등에서는 인간의 운수를 결정짓는 관리와 그의 명을 수행하는 사자, 또 그들이 머무는 관부, 저승으로 가는 아득한 길 정도가 사후 세계의 구체적인 정보로 나타난다. 이들은 인간 세상의 그것들과 닮아 있다. 심지어 유몽인은 저 세상의 즐거움에 이르기까지 간과할 수 없는 관심을 보이면서 그것이 사실일 수 있다는 여지를 두고 있다.⁵¹⁾ 이것은 죽음에 대한 유가적 인식이 아니라 불교 혹은 무속적 사후관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⁵²⁾53)

이같은 유몽인의 민간신앙적인 차원의 귀신인식은 그의 개인적인 실제 경험에서도 확인된다. 유몽인이 손수 정리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신의 산문집 『목호고』에는 ‘余亡室貞夫人申氏…’로 시작되는 장편의 글이 있다. 이는 집안에 나타난 원귀를 물리치기 위해 저승의 十王에게 호소하는 ‘懇十王文’과 그 이후의 일에 대해서 기록한 글이다. 첩이 부인 申氏에게 양법을 행하고, 발각되어 죽었더니 또 원귀가 되어 잡귀를 끌고 와서 복수를 하며, 소시왕문을 지어 겨우 물리쳤다는 내용 등은 모두 민간신앙 차

俗禮를 더욱 강화하는 양상을 낳기도 했다.

50) 촌산지순(村山智順), 『조선의 귀신』, 노성환 역, 민음사, 1993, 166~218쪽. “제4절 인간의 귀신”에서 유사한 귀신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

51) 156 <이집중자음관야(李執中者蔭官也)> “嘗[常]야-국怪是言”

52) 이수자, 『저승, 이승의 투사물로서의 공간』 『죽음이란 무엇인가』, 한국종교학회편, 창, 1990, 53쪽.

53) 다른 유형의 이야기에서도 유가적 귀신론의 범위를 벗어나는 이야기가 많이 있다. 한 가지 예를 제시한다. 531 <이상국자상명항복(李相國子常名恒福)>에서 3, 400년 전 조상인 익제 이제현이 자기 이항복이 우물에 빠지려 하자 곁에서 즐기고 있는 유모의 꿈에 나타나 정강이를 때려 아기를 구한다.

원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다.

유몽인은 어릴 적부터 저승에 관한 말을 들으면 믿지 않았는데 이런 변란을 겪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음을 고백하고 있다. 그러면서 冥府, 冥官, 법도를 무시하며 먹을 것을 구하는 굶주린 靈들의 존재 등을 인정하고 있다. 심지어 ‘어찌 민멸되지 않는 혼이 인간세상에서 저처럼 한 문호를 세우고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까지 한다. 또 ‘광명정대한 태도로 천지에 부끄러움이 없다면 비록 邪鬼에 의해 죽더라도 무슨 한이 있겠는가? 하물며 덕이 있는 군자야 신명이 돕는 바 있음에랴.’라고 하여, 바르게 살면 신명이 돕는다는 의식도 직설적으로 나타낸다. 『어우야담』은 이같은 귀신의 변고를 겪은 이듬해인 1620년에 저술되었다.⁵⁴⁾ 실제 체험에서 이루어진 귀신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귀신담 속에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논의 내용과는 다르게 유몽인은 직접적인 언술로써 그가 유교적 귀신론⁵⁵⁾을 堅持하고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152 <이경희유귀작요(李慶禧有鬼作妖)> 말미에는 어우 자신의 긴 평설이 붙어 있는데 이같은 귀신관을 뚜렷하게 밝히고 있다.

… 천지간에 사대의 기운이 모여 사람이 되었다가 죽으면 태공으로 되돌아가 아득히 흩어지게 된다. 그 사이 살아 있을 때 원한을 품으면 기가 흩어지지 않고서 인간에게 요사를 부리는 것이 있는데, 이는 천백 가운데 한둘도 못 되는 것이다.…⁵⁶⁾

54) 신익철, 『유몽인 문학 연구』, 보고서, 1998, 162~176쪽.

55) 조동일, 「15세기 귀신론과 귀신 이야기의 변모」 『문학사와 철학사의 관련 양상』, 한샘, 1992, 43~93쪽. 여기에서 조선조 유가적 귀신론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고 있다.

56) “其爲[始]청·고·위天地間四大之氣, 鍾異成人, 死則還歸太空, 漠[渙]청·고·위然而散. 其間生爲含冤, □□[抵死]청·고·위氣不散, 作妖人間<者>청·고·위, 千百中不

이러한 귀신관은 지배계층의 유가적 인사로서 표명하는 명분상의 공언이라고 생각된다. 조선 중기 조정의 정책으로 유가적 귀신론과 유교적 의례가 자리잡혀 가던 시기에 도승지, 대사간까지 지낸 고관으로서, 유몽인은 그것에 반하는 견해를 표명함으로써 정치적 위험 부담을 자초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유가적 귀신론의 범위로 수렴되는 귀신담도 있다. 129에서 이순신의 아들이 혼령으로 나타나는 것은 원한으로 기가 아직 흠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143, 145 등도 미녀귀신이 죽은 지 오래 되지 않아 원귀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된다. 127에서는 조상의 혼령이 家廟에 거처하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기도 하다.

이상과 같이 『어우야담』 귀신담에서 귀신에 대한 문학적 상상력은 유가적 인식의 범위 내로 수렴되기도 하지만 그것을 벗어나는 측면이 더 많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작품 속에서는 죽음의 세계도 침범할 수 없는 신성한 인물이 제시되고 있어 매우 흥미롭다. 이들은 사후 존재의 영향력을 초월한 존재이다. 이는 죽음의 세계보다 우위에 서는 인간의 영역이 있다는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5) 사후 존재가 고관대작을 범하지 못하는 서사 전개 방식을 보이는 이야기가 이에 해당한다. 이에 해당하는 자료는 2편이지만 특별한 의식을 보여주고 있어 주목된다. 141에서 권람은 전 가족이 전염병에 걸린 친구를 구제하러 갔다. 친구를 잡으러 온 저승사자는 권람을 보고 권정승이니 침범할 수 없다 하고, 기어코 도망간 친구를 구석진 마을에서 찾아 잡아 갔다. 의로운 정승감은 죽음의 세계에서도 함부로 관여할 수 없었다. 142는 더욱 놀랍다. 평안도 방백 한준겸이 부친상을 당하여 관(棺)을 객사에

一二焉.”

안치하는 잘못된 처사를 했다. 그래서 저승관리가 잡아오게 했다. 명을 받은 귀신 줄개들이 가자마자 돌아와서 “상주가 감사 한준겸입니다. 관사 아래에 문의 신령들과 응위하고 보호하는 줄개들이 심히 많아 범할 수가 없었습니다.”⁵⁷⁾라고 말한다. 그 후 그의 아들을 대신 잡아갔다. 감사는 잘못을 했는데도 저승관리가 처벌할 수 없었다.

권람은 좌의정 우의정을 지낸 인물이다.⁵⁸⁾ 좌의정 우의정은 정1품관으로 최고 품계에 해당하며, 평안도 방백은 종2품관에 해당하는 높은 품계이다. 이처럼 높은 품계의 인물들은 사후 존재들도 함부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었다. 재상은 보통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한 인물로서 늘 귀신이 응위하여 보호하고 있다.⁵⁹⁾ 타당한 사유 없이도 악귀의 해악을 당하는 일반 사람들과는 판이하게 다른 처지에 있다. 이는 재상이나 높은 벼슬아치에 대한 선별의식, 숭앙의식으로 생각된다. 초현실계의 존재로부터 보호를 받는 특별한 존재인 것이다. 142에서 손님을 대접하는 관사는 사명(使命)을 받은 자가 머물러 쉬는 집이어서 땅의 영(靈)들이 옹호해 주는 곳으로서, 죽은 시체로 하여금 어지럽힐 수 없다는 데서도 국가 운영에 관여된 공적 공간도 신성시하는 인식을 볼 수 있다.

이처럼 국가 경영에 관여되는, 인물이나 공간을 신성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세계를 죽음의 세계 우위에 두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인간의 세계가 죽음의 세계에 전적으로 종속되어 좌지우지 되지 않는, 존엄

57) “主喪者乃韓監司浚謙也。館下有門神戶靈擁卒衛護者甚衆不可干”

58)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9), 앞의 책, 144쪽, ‘권람’

59) 142 말미 논평에서 유몽인은 “예전에 요승과 송경이 미천할 때 지나는 길에 객점에서 자게 되었는데, 귀신 줄개 왕군양이 지켜 보호하며 감히 떠나지 않았다. 재상이 머물러 있는 곳마다 반드시 귀신이 있어 응위하였으니, 어찌 기이하지 않은가?”라고 말한다. “昔姚崇宋璟微時。過宿客店。鬼卒王君昂守護不敢離。宰相所止寓必有神鬼擁衛。豈不異哉。”

한 독자적인 영역임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문제가 있을 때는 인간의 세계가 죽음의 세계에 의해 치명적인 침해를 받을 수도 있어서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정리하면 『어우야담』 귀신담에서는 유가적 귀신론에 부합되는 이야기들이 있으며, 유몽인 스스로도 평설을 통하여 명분상으로는 자신의 유가적 귀신관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이야기에서 그는 불교와 무속이 습합된 민간신앙 차원의 귀신관을 드러내며 귀신의 존재와 사후 세계에 대한 큰 관심과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귀신의 힘에 휘둘리지 않는 주체적인 인간 우위의 영역이 있음을 확실히 하고 있다.

어우의 귀신인식은 15세기 『용재총화』를 집필한 성현의 귀신에 대한 입장과 흡사하다. 성현은 재래의 민간신앙과 신유학의 이념, 하층의 전승과 상층의 규범 사이에서 양쪽을 다 인정하면서 조화를 찾으려고 했다고 할 수 있다. 귀신이 실제로 있고 여러 모습을 갖추어 나타난다고 믿으면서 대인군자가 나서면 물러가게 할 수 있다고 했다.⁶⁰⁾ 조선조 초·중기에 상당수 유가 지식인들은 귀신담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부정적인 인식을 표방 했지만 실제로는 관심과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단된다. <설공찬전>을 지은 채수도 그 중 한명이다.⁶¹⁾

4. 결론

『어우야담』에 실려 있는 귀신담에서 유몽인은 초현실적인 기이한 소재를 바탕으로 진지한 삶의 의미를 모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어우야담』

60) 조동일(1992), 앞의 책, 60~69쪽. “5. 成倪의 귀신론과 <<慵齋叢話>>”

61) 조현설(2003), 앞의 논문, 156~157쪽.

귀신담은 필기·야담류에 실려 있는 귀신이야기를 고찰할 때에 서사문학사적으로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다. 이같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에 본고에서는 『어우야담』 귀신담에 주목하고 기본적인 작품 이해를 위한 논의에 충실하고자 했다. 본 논의에서는 『어우야담』 귀신담 전체를 다루면서 서사 전개 양상의 전반적인 성격을 밝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귀신이야기가 드러내고 있는 중요한 의미를 탐색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2장에서는 40편의 자료를, 주된 서사적 관심사로 나타나는 인간과 귀신(혹은 사후 세계)과의 만남 양상을 기준으로 여섯 유형으로 분류하여 서사 전개 방식과 구체적인 서사 양상을 분석하였다. 그리하여 귀신담의 전반적인 서사 양상을 효과적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했다. 1) 인간이 사후 세계를 확인(3편) 2) 인간이 귀신 존재를 확인(8편) 3) 인간이 귀신의 문제 해결(7편) 4) 귀신이 인간을 도움(7편) 5) 귀신이 고관대작을 범하지 못함(2편) 6) 귀신이 인간에게 해 끼치기(13편) 등으로 구분된다. ()속에 해당 자료 편수를 제시하였다.

3장에서는 2장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유몽인이 귀신담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중요한 의미를 탐구하였다. 그 결과 삶의 정도(正道) 지향의식, 사회 현실의 문제 제기와 극복의식, 유교 불교 무속이 혼재된, 주체적인 귀신인식 등을 밝힐 수 있었다.

먼저 대다수 귀신담에서 유몽인은 다양한 방식으로 삶의 正道 지향의식을 가장 두드러지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비현실적인 존재인 귀신에 관한 이야기를 통하여 저승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제언하고 있는 것이다.

귀신담 15편에서 유몽인은 사회적인 문제를 중요 소재나 배경으로 삼아 문제를 제기하고 비현실적인 방식으로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연구자료 40편 전체 화수에 비해 큰 비중을 차지하는 편으로 삶의 정도 지향의

식 다음으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귀신이야기를 통해 중대한 사회 현실의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저술의도가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임진왜란이나 역병 등으로 인한 사회 현실의 문제를 가장 빈번하게, 강렬하게 제기하면서 15, 6세기의 필기·야담집 속의 귀신담과는 크게 달라진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밖에도 억울하게 처형당한 정치적 인물, 주인을 살해하는 종의 징치, 難産死者를 국가 제사에 수용하는 문제, 高官의 잘못된 처사 징계 등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사회현실의 문제를 비중있게 다루는 것은 유몽인의 진지한 작가의식 없이는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어우야담』 귀신담에서는 유가적 귀신론에 부합되는 이야기들이 있으며, 유몽인 스스로도 평설을 통하여 명분상으로는 자신의 유가적 귀신관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이야기에서 그는 불교와 무속이 습합된 민간신앙 차원의 귀신관을 드러내며 귀신의 존재와 사후 세계에 대한 큰 관심과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귀신의 힘에 휘둘리지 않는 주체적인 인간 우위의 영역이 있음을 확실히 하고 있다.

유몽인의 귀신인식은 15세기 성현의 그것과 흡사하다. <설공찬전>을 지은 채수도 유사한 입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조 초기부터 중기에 이르기까지 상당수 유가적 지식인들이 공식적으로는 유교적 귀신 관념을 표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불교 무속이 습합된 민간신앙적 차원의 귀신 인식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추단된다.

『어우야담』 귀신담은 귀신에 관한 민간신앙이나 풍습 속에서 미혹되지 않고 오히려 건강한 삶의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으며, 절박한 사회문제를 수용하여 제기하고 극복하고자 하는 의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닐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집권사대부인 유몽

인의 진솔한 귀신인식도 들여다 볼 수 있었으며 『어우야담』 귀신담의 서사문학사적 위상도 부분적으로나마 함께 점검해 볼 수 있었다.

기존 연구 상황으로 볼 때 필기 야담류에 나타나는 귀신담에 대해 귀신의 성격이나 이야기 일부 구성 요소 중심의 논의에서 나아가 귀신이야기 전체로서 주목하면서 작품집 개개별로 다양한 시각으로 더욱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를 바탕으로 귀신담의 서사문학사적 변모가 치밀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다. 또 귀신담 연구에서 귀신을 종류 별로 나누어 그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고, 신성한 세계와 관련 있는 초현실적 존재에 대한 고찰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논의도 이러한 관점에서 더욱 진전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유몽인, 『어우야담(於野談)』 1, 박명희 외 4인 역주, 전통문화연구회, 2001, 1~257쪽.
- _____, 『어우야담』 3, 현혜경 외 2인 역주, 전통문화연구회, 2003, 1~234쪽.
- _____, 『어우야담 : 원문』, 돌베개, 2006, 1~450쪽.
- _____, 『어우야담』, 신익철 외 3인 역주, 돌베개, 2006, 1~859쪽.
- 강상순, 「조선 전기 귀신 이야기에 잠복된 사회적 적대」, 『민족문화연구』 56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2, 97~136쪽.
- _____, 「필기·야담을 통해 본 조선후기의 귀신관과 사후관」, 『종교문화연구』 22, 한신대 종교와문화연구소, 2014, 135~172쪽.
- 김재용, 「귀신 이야기의 기호학」, 『한국학논집』 30집,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3, 61~74쪽.
- _____, 「이야기 연쇄와 주제 범주화의 상호성에 대한 시론적 접근」,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27,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05, 91~117쪽.
- 김정숙, 「조선시대 필기·야담집 속 귀신·요괴담의 변화 양상」, 『한자한문교육』 제 21집,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08, 555~577쪽.
- 신익철, 『유몽인 문학 연구』, 보고서, 1998, 1~264쪽.
- 유성룡, 『징비록』, 김홍식 역, 서해문집, 2014, 1~320쪽.
- 윤주필, 「귀신론과 귀신이야기의 관계 고찰을 위한 시론」, 『국문학론집』 15집, 단국대국어국문학과, 1997, 147~174쪽.
- 윤혜신, 「〈어우야담〉소재 귀신담의 귀신과 인간의 교류방식과 특징」, 『민족문화사연구』 34집, 민족문화사학회, 2007, 206~239쪽.
- _____, 「〈於野談〉소재 鬼神譚의 트라우마(trauma)적 성격」, 『大東文化研究』 63집,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院, 2008, 227~262쪽.
- _____, 「〈어우야담〉소재 귀신담의 귀신육망과 육망의 실현방법」, 『洙上古典研究』 제29집, 열상고전연구회, 2009, 363~401쪽.
- 이경우, 「초기야담의 문학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1, 1~204쪽.
- 이수자, 「저승, 이승의 투사물로서의 공간」, 『죽음이란 무엇인가』, 한국종교학회편, 창, 1990, 47~75쪽.

- 이종은외 5인, 『한국 문학에 나타난 한국인의 우주관과 생사관 연구』, 『한국학논집』 30집, 한양대 한국학연구소, 1997, 131~231쪽.
- 임재해, 『귀신설화에 포착된 인간과 귀신의 만남 양상과 귀신인식』, 『구비문학연구』 25권, 한국구비문학회, 2007, 1~53쪽.
- 정환국, 『17세기 이후 귀신이야기의 변모와 ‘저승’의 이미지』, 『고전문학연구』 31집, 한국고전문학회, 2007, 99~128쪽.
- 조동일, 『15세기 귀신론과 귀신 이야기의 변모』, 『문학사와 철학사의 관련 양상』, 한샘, 1992, 43~93쪽.
- 조현설, 『조선 전기 귀신이야기에 나타난 神異 인식의 의미』, 『고전문학연구』 23집, 한국고전문학회, 2003, 147~178쪽.
- 촌산지순(村山智順), 『조선의 귀신』, 노성환 역, 민음사, 1993, 1~156쪽.
- 최길성, 『한국의 조상 숭배』, 예전, 1991, 1~302쪽.

ABSTRACT

The Narrative Modality and its Significance of 'the Tales of Ghosts' in <Euwooyadam>

Hyun, Hye-kyung

This thesis analyzes the whole development of narration about 'the tales of ghosts' in <Euwooyadam> Based on the analysis, the significant meanings of 'the tales of ghosts' are investigated.

On chapter 2, the development and specific aspect of the narration are analyzed with five categories which are classified by the criteria of descriptive interests. Therefore, the whole development of 'the tales of ghosts' could be easily and effectively understood.

They are categorized with the followings. 1) confirmation of the world after death 2) confirmation of ghosts 3) A living person's settlement of the ghost's problems 4) Ghost's help for living persons 5) Ghosts can't harm a high and distinguished official 6) Ghosts harm living persons

On chapter 3, based on the discussion in chapter 2, the significant meanings which are meant to be passed on through the tales of ghosts are investigated. As a result pursuing for the moral life, the suggestion for the society's problem followed by the will to overcome and the autonomous awareness about ghosts could be proved. The tales of ghosts on <Euwooyadam> are very meaningful because they present the healthy thoughts of life. In addition, the narrative literature's meanings of 'the tales of ghosts' could be investigated.

Key Words <Euwooyadam>, the tales of ghosts, narrative modality, pursuing for the moral life, the suggestion for the society's problem, the autonomous awareness about ghosts

논문투고일 : 2017.01.09

심사완료일 : 2017.02.05

게재확정일 : 2017.02.20